

한국HP, 대형 프린터 디자인젯 시리즈 3종 출시

고속 출력 · 고품질 컬러 실현

한국HP(대표 최준근)는 최근 출력 속도 대폭 개선으로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킴과 동시에, 뛰어난 컬러 일관성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색감 및 섬세한 출력이 가능한 대형 프린터 시리즈 3종을 출시, 빠르게 성장하는 상업용 디지털 프린팅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장보고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된 신제품은 건축, 설계, 엔지니어링,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를 위한 HP 디자인젯 T610 및 T1100시리즈와 전시용 그래픽, 실내용 간판, 포스터 제작을 위한 HP 디자인젯 Z6100시리즈다. 특히 실내 포스터 제작이 가능한 HP 디자인젯 Z6100시리즈는 일반 사무실에서의 마케팅 포스터를 비롯한 다양한 사내외 출력물 제작에도 적합하다. 이번에 출시한 대형 프린터 시리즈 3종은 HP의 컬러 이미징 부문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된 HP 드림 컬러 테크놀로지(Dream Color Technology), 획기적인 속도 개선으로 생산성을 2~3배 향상시킨 더블 스와스 기술(HP Double Swath Technology)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접목된 것이 특징이다.

획기적인 속도 개선 돋보이는 디자인젯 Z6100

HP 디자인젯 Z6100시리즈에 적용된 HP드림컬러 테크놀로지는 디지털 컬러 장치에서 다양한 용지에 정확하고 예측가능하며 일관된 컬러를 구현하는 기술이다. 컴퓨터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와 프린터에 활용하면 눈에 보이는 모니터에서의 컬러와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



된 인쇄물의 컬러를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 있다. 이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 '슈렉'에도 도입된 기술로, 창작분야에서 중요한 정확한 컬러표현이 구현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디자인젯 Z6100는 세계 최초로 발표된 HP 광학 미디어 진행 자동 제어 센서(OMAS: Optical Media Advance Sensor)를 장착, 용지를 직접 측정하여 프린터 내의 미디어 진행 상황에 대해 정확한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 센서는 또한 미디어 진행 제어를 강화함으로써 밴딩 문제를 방지하는 동시에 이미지 품질의 저하 없이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더 빠른 속도로 인쇄가 가능하다.



디자인젯 T610

디자인젯 T1100

야간에도 프로덕션 물량의 인쇄를 무인 작업으로 진행하여 작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디자인젯 Z6100 시리즈는 지하철 광고, 버스광고 등 옥외, 실내 상업용 광고물 제작 시장뿐만 아니라, 그래픽아트, 디자인, 파인아트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동급 최고 출력 속도를 자랑하며, 일반 용지에서 시간당 105.4m² 이상, 광택 용지에서 시간당 23.4m² 이상의 최고 속도를 제공한다.

가는 선까지 정확하게 구현하는 T610, T1100

이날 함께 출시된 HP 디자인젯 T610, T1100 시리즈는 건축/엔지니어링(AEC), GIS(지리정보 시스템) 전문가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이다. 도면, GIS 등의 정밀한 작업의 표현을 구현하기 위한 라인 정확도 기술(Line Accuracy Technology)을 도입, 0.04mm의 가는 선까지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젯 T610, T1100 시리즈는 HP 3종 검정 잉크(무광 검정, 포토 검정, 그레이) 세트를 사용하여 세부 묘사가 강조되며, 선명한 컬러에서 부드러운 색조까지 균일하고 섬세하게 명암비율을 유지하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어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설계, 지도 출력 등 고도의 세밀한 출력물을 요하는 작업에 최적이다.

이외에도 디자인젯 T610, T1100 시리즈는 HP G/L 2언어를 내장, 기존의 HP 디자인젯 시리즈 대비 최고 3배 빠른 속도로 CAD/GIS 프로젝트를 출력할 수 있다. 때문에 작업 시간이 대폭 절약된다. 또 고속 인쇄에서도 일

관된 결과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HP의 혁신적인 대형 프린트헤드 기술로 A1 페이지를 최대 35초 이내에 출력할 수 있는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 한국HP 이미징프린팅그룹장 조태원 부사장은 "한국HP는 빠르게 성장하는 상업용 디지털 프린팅 시장의 고객 요구를 만족시킬 대형 프린팅 신기술과 생산성이 대폭 향상된 신제품으로 업계를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PGshow 2007, P&I 2007에서 선보여

한국HP는 신제품 시리즈의 홍보 차원에서 지난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열린 '국제 사진 영상 기자재전/디지털 영상전(P&I Show)'에 참가해, HP 디자인젯 Z6100, Z3100 시리즈 등의 시연과 함께 출력 작품을 전시했다. 특히 HP 부스에서는 한국HP와 매그넘 공동 주최로 5월말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적인 다큐사진작가 마틴 파(Martin Parr) 사진전의 일부를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도 했다. 전시되었던 작품은 마틴파가 한국 및 북한에서 촬영한 한국특별전 7점으로, 모두 HP 디자인젯 Z3100과 인화지로 프린트되었다.

한국 HP는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코엑스 인도양홀에서 개최된 실사 및 디지털 프린팅 전문 전시회인 '국제디지털프린팅 및 그래픽 디자인전 2007(DPGshow 2007)'에서도 신제품인 디자인젯Z6100 시리즈를 비롯해 디자인젯 5500, 8000s, 9000s, 10000s를 함께 선보였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